

따뜻한 감동 전하는 음악의 전도사

《나는 작은새 금난새》 펴낸 지휘자 금난새씨

사람의 힘은 강하다. 금난새(50, 수원시향 상임지휘자)씨는 여러모로 ‘힘’을 느끼게 하는 지휘자다. 그의 힘은 비단 자신이 지휘를 맡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끄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대중과 괴리된 우리나라 클래식음악의 높은 벽을 허무는데 그는 누구보다 크게 기여한 음악가다. ‘청소년 음악회’ ‘송년음악회’ 등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대중속으로 이끌었던 금난새씨는 음악을 통해 청중도 장악한다. 그가 지닌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자신의 음악인생 30년을 정리한 책 《나는 작은새 금난새》(디자인 하우스)를 통해 금난새씨는 그가 지닌 힘이 다름아닌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 사람·사물·세상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음악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전파하도록 부추기는 가장 큰 동인이다.

금난새씨는 지난해 아내 홍정희씨와 다다·드루니 두 아들을 영국으로 떠나 보냈다. 너무 바쁘고 알려진 자신 때문

에 가족들의 생활에 제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자유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3월로 예정된 수원시향의 해외 순회 연주회 준비로 금난새씨는 혼자 생활하는 고적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바쁘다. 연습을 하면서 혹은 연주회에 앞서 그가 단원들에게 요구하는 ‘음악’은 바로 이런 것이다.

“추운 겨울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건네는 찻잔이 미리 따뜻하게 데워진 것이더군요. 음악도 미리 데워 놓은 찻잔처럼 따뜻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책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베를린 음대 시절, 도서관에 가서 무수한 책 가운데 앉아 있으면 “마치 커다란 항공기를 운전하는 느낌”이었다고 술회하는 금난새씨는 음악 관련서나 악보, CD들을 모아놓은 자지만 특별한 음악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 박남정 기자



① 단정한 외모만큼이나 깔끔한 금난새씨의 사무실.

음악 외에 미술이나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서적들을 자주 뒤적거린다.

② 수원시향은 이제 수원시민들의 자부심이다. 3월로 예정된 해외 순회 연주 연습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③ 결혼 한 후 한번도 집을 옮기지 않고 20여평의 작은 아파트에 산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한 작업실 겸 연주실. 불가리아의 한 아마추어 화가가 그려줬다는 초상화가 눈길을 끈다.

④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연주활동을 중단한 아내에게 늘 미안하다. 벽에 걸린 바이올린은 아내가 연습용으로 사용했던 것들.

⑤ 악보집과 음악관련서들이 주를 이루는 금난새씨의 서기는 담백하고 정연하다.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음악 한 길’로 살아온 금난새씨의 삶이 주는 느낌도 그렇다.



